7곳 우세 국민의당 쏠림 가속…3~4곳 오차범위 접전

KBS·KBC 광주 8개 선거구 여론조사 분석

천정배·장병완·박주선 10~20%P 이상 앞서

광산을 이용섭·권은희 39.1% 대36.1% 박빙

서구갑·광산갑·북구을 3곳 국민의당 경합우세

4·13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 방송사의 광주지역 총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점했다. 각 방송사에 따라 3~4곳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광산을을 제외한 광주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광산을에서만 더민주 이용섭(39.1%) 후보가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36.1%)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또한, 현역 없이 원외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서구갑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39.4%) 후보와 더민주 송갑석(31.6%) 후보가, 북구을에서는 국민의당 최경환(35.1%) 후보와 더민주 이형석(29.1%)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되는 서구을에서는 5선 현역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가 42.7%, '고졸 신화' 양향자 후보는 29.0%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인 박주선·장병완·김동철 후보는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다른 후보들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갑에서는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장병완(44.4%) 후보가 더민주 최진(20.9%)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고, 옥중출마한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11.1%에 그쳤다.

동남을은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44.8%로, 더민주 이병훈(32%) 후보를 앞섰고, 광산갑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가 37.7%로, 더민주 이용빈(27.7%) 후보에 10%포인트 앞섰다.

북구갑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51.1%) 후보가 더민주 정준호(19.8%)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선거구별로 유권자 500~700여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동남을 ±3.6% 포인트, 광산을 ±3.7% 포인트, 나머지 6개 선거구는 ±4.3%포인트다.

KBC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산을 더민주 이용섭(37.4%)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권은희(33.6%) 후보를 앞섰을 뿐 7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했다.

현역 의원들인 동남갑 장병완·동남을 박주선·서구을 천정배 후보는 더민주 후보를 10~20% 포인트 이상 앞섰다. 서구을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가 45.7%, 더민주 양향자(22.2%)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고, 동남갑에서도 국민의당 장병완 후보가 39.3%로, 더민주 최진(19.9%) 후보를 크게 앞섰다.

동남을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43.3%로, 더민주 이병훈(31.2%) 후보를 제쳤다.

현역의원 중에는 광산갑 김동철(35.6%) 후보가 더민주 이용빈(31.5%)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대결 가운데는 북구갑에서 국민의당 김경진(55.2%) 후보가 더민주 정준호(15.6%) 후보를 크게 앞섰다.

반면, 북구을에서 국민의당 최경환(32.8%) 후보가 더민주 이형석(29.2%) 후보와, 서구갑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34.9%) 후보가 더민주 송갑석(29.4%)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은 옥중출마한 동남갑 강운태 후보만이 12.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선거구별 500명씩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한편,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일 발표한 광주 동남갑, 동남을 선거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장병완 후보가 50.3%로, 17.6%의 지지율을 얻은 더민주 최진 후보를 큰 폭으로 앞섰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12.5%의 지지를 받았다.

동남을에서는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46.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 이병훈 후보가 30.4%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 선거구 성인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위 3곳 언론사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

◆동남갑

◀최진 (더민주) 장병완▶ (국민의당)

KBS광주	20.9	44.4
KBC	19.1	39.4
연합뉴스 KBS	17.6	50.3

◆동남을

◀이병훈 (더민주) 박주선▶ (국민의당)

KBS광주	32.0	44.8
KBC	31.2	43.3
연합뉴스 KBS	30.4	46.1

◆서구갑

◀송갑석 (더민주) 송기석▶ (국민의당)

KBS광주	31.6	39.4
KBC	29.4	34.9

◆서구을

◀양향자 (더민주) 천정배▶ (국민의당)

KBS광주	29.0	42.7
KBC	22.2	45.7

◆북구갑

◀정준호 (더민주) 김경진▶ (국민의당)

KBS광주	19.8	51.1
KBC	15.6	55.2

◆북구을

◀이형석 (더민주) 최경환▶ (국민의당)

KBS광주	29.1	35.1
KBC	29.2	32.8

◆광산갑

◀이용빈 (더민주) 김동철▶ (국민의당)

KBS광주	27.7	37.7
KBC	31.5	35.6

◆광산을

◀이용섭 (더민주) 권은희▶ (국민의당)

KBS광주	39.1	36.1
KBC	37.4	33.6

◆동구청장

	홍진태(더)	김성환(국)	양혜령(무)
KBS광주	23.2	33.4	28.0
KBC	20.1	35.0	23.6

※ KBS 광주방송총국은 1~3일 조사, 4일 발표
KBC 광주방송은 3월30일~4월2일 조사, 4일 발표
연합뉴스·KBS는 1~3일 조사, 4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오전 아산을 강훈식 후보와 함께 충남 아산시 진성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볼풀 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5일 오후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의정부갑에 출마한 김경호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다가 한 어린이의 나이를 묻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층 최대 30%…승패 가를 변수로

야당 분열로 늘어…당·출마자들 맞춤 공략 고심

4·13 총선 광주지역 각 당의 출마자들이 최대 30% 안팎의 부동층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부동층의 향배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물론 각 당의 지지세 외연 확산에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유보한 부동층은 최대 30.3%다. 지역구별로는 ▲동갑 갑 22.1% ▲동남을 19.2% ▲서구 갑 25.3% ▲서구 을 15.9% ▲북구 갑 23.7% ▲북구 을 30.3% ▲광산 갑 20.9% ▲광산 을 16.5% 등이다.

특히 광주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최대 79.7%(동남 을)에 불과했다. 적극적 투표 의향 유권자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처럼 각 당 후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부동층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과 출마자들은 부동층 표심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각 당과 출마자들은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비판적 성향이 강해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형성된 30~40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또 경제에 민감한 30~40대 부동층에게 집권여당의 정책 비전을 앞세워 경기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당은 지지율 회복과 사안별 야권 후보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부동층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20~30대 더민주, 50대 이상 국민의당

세대별·연령대별 지지층 갈려…청년층 투표율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간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광주지역 각 선거구는 연령별로 지지정당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세대 간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형성된 셈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어느 정당이 해당 지지층을 투표장에 더 많이 끌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 됐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 주로 20~30대는 더민주를, 50~60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 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에서 더민주 이병훈 후보 연령별 지지층을 보면 ▲30대(44.2%) ▲20대(37.4%) ▲40대(29.1%) ▲50대(29.1%) ▲60대(23.0%) 등 순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 연령별 지지층을 보면 ▲60대(54.7%) ▲50대(52.6%) ▲40대(39.5%) ▲20대(30.5%) ▲30대(28.9%) 등의 순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전 지역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을 보면 50~60대의 경우 70~80%대를 기록한 반면 20대는 50~6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지지후보의 연령대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더민주에선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가 최대 변수가 된 셈이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표심 전파력이 어느 계층에 비해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도 변수 중 하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